

<한일 경제협력의 경로의존성과 위기관리론: 안전경제학의 관점에서>

김영근(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한일간 외교통상 패러다임(패턴)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과거 ‘수직적 분업관계’로의 회귀 및 ‘휴먼에러’를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후 한일관계가 시스템(체제)을 기조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한일 갈등구조는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휴먼에러’가 작동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휴먼에러(Human Error)란 인위적이거나 인간이 일으키는 실수를 뜻한다.
- “한일 간 리스크 관리의 정치: 화해학을 시작하자”: 한일 간 협력과 화해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모색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론. 기존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융합인문학’ 시각을 도입하여 ‘재난·안전공동문화체’의 구축도 한일 협력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

□ 리스크 관리 및 화해학의 유형과 실천요소

영역	유형	저해요인의 관리 및 실천요소
정치 (민주화)	정치적 화해 = 【민주주의 이념의 공유】 ⇒지정학적 대립	정권교체의 정치: 이데올로기 전후체제, 시민혁명, 헤이트스피치
경제 (산업화)	경제적 화해 = 【산업화 및 협력구도】 ⇒지경(地經)학적 대립	산업정책과 경제성장론 개발주의, 수직적 분업구조/경쟁관계, 수평적 분업구조/공생관계, 종속적 발전모델, 협력적 발전모델, 자생적(自生的) 발전모델, 산업기술
사회문화 (자유화·합리화)	사회적·문화적 화해 = 【자유·평등·합리주의의 실현】 ⇒지사(地社)학/지문(地文)학적 대립	근대문명론 한류(韓流), 일류(日流), 재해문명론, 사회계층, 다문화공생(이민), 재일한국인, 재한일본인, 문화충돌, 종교개혁, 계몽사상가
역사인식 (평화사상)	역사·인식적 화해 = 【평화사상 및 언론의 자유 실현】 ⇒지사(地史)학/지지(地智)학적 대립	전쟁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사 철학, 인식, 언론, 이데올로기, 학지(學知)
과학기술 (공학·의학)	과학기술·공학적 화해 = 【인류복지 및 행복의 과학화】 ⇒지과(地科)학/지공(地工)학적 대립	인문공학 과학기술(Science Technology), 문화기술, 안전혁명
공동체 (공유)	지역협력 및 화해공동체 = 【휴마트(Humanity+Smart) 구현】 ⇒지공(地公)학/지공(地共)학적 대립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공유사회,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 지역질서, 열린미래, 국제협력

출처: 김영근(2015), 도미나가 분석[富永健一(1990)『日本の近代化と社会変動』講談社]을 인용.

□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 vs. 탈냉전 후 경제적 리스크 관리

	전후(냉전시대) 일본 경제	냉전 후 일본 경제	글로벌시대의 일본 경제
경제 목표	생산중시, 양적 확대형, 고도성장지향	생활중시, 환경보전형, 질적우선행, 안정성장지향	지속가능성장지향, 리질리언스
성장요인	수출주도형	내수주도형	지역사회소비형
세계의 정치경제체제	냉전, 미소지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탈냉전, 미·일·유럽 3국경제권(+중국),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소다자주의 및 메가FTA, 트랜스자본주의
국제 공헌	소극적, 세계 GDP의 10% 이하	적극적, 세계 GDP의 15%	적극적, 세계 GDP의 10% 전후
정치·정부의 성격	자민당 단독집권시대, 큰 정부, 중앙집권	정권교체 시대, 작은 정부, 지방분산	자민당2.0시대, 지방의 몰락,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 중시
국가 목표	구미 지향 및 추월	개방된 과학기술국가의 구축: 기술혁신	글로벌 과학기술의 선도 및 협력기반 구축
가치관	동질화	다양화, 다원화	융합화
생산기술의 성격	에너지 혁신· 집적형, 에너지·자원다소비형	정보혁신· 분산형,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지식융합형· 인공지능(AI)
주력 산업	중형장대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경박단소형(전자·기계 등)	제4차산업 및 제6차산업
조세 및 금융제도	직접세 중시, 규제금리, 간접금융(은행대출)	간접세 중시, 자유금리, 직접금융(채권발행)	글로벌 금융제도의 수용
노동력, 연령구성	노동력 풍부, 청장년 사회	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자료: 필자 작성, 김연석·정용승(2002), p. 18의 <표 1-5> 수정·보완.

□ 한일관계, 리제너레이션 그리고 리질리언스(6R)

-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vs. G20 의장국 일본의 국제규칙(반보호무역주의 원칙)에 관한 깃발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한계 노정
- 2020도쿄올림픽과 비핵화(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한일관계: “2020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억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본의 딜레마”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발동 vs. WTO 위반: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본 전문가들의 한일관계 전망: “정치와 경제 이슈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만 경제 정책을 맡은 경제산업성까지 나선 게 문제의 핵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그동안 차분했던 일본 관료들까지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 김영근 인터뷰 @중앙일보 2019년 3월 12일자
- 6R: 신속성, 강인성, 가외성, 자원동원력, 지역경쟁력, 르네상스/리제너레이션(휴마트파워)

[한일 정치경제시스템의 변용 vs. 한일간 경제대립과 협력의 유형화]

	미국의 아시아관여기		한일국교정상화 vs. 미일마찰기		한일협력의 정체 vs. 미일협력 모색기		한미일 대립과 협력의 중층화 구도	
	전후 개혁(1945~) 및 ~한일국교정상화(1965)		SII 미일구조협약의 (1989~1991년)		미일포괄경제협약의 (1993~1996년)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 (2012년 12월~)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	전후 체제 →		수직적 분업관계 종속적 발전모델		수직적 경쟁관계 자생적 발전모델		수평적 공생관계 협력적 발전모델	
일본의 경제협력력구상	수동적 전후배상과 수출주도형 원조		三位一體(직접투자, 원자재 수입, ODA)형태의 경제협력 시도		한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협력의 제도화 모색기		지역협력체제의 단계적 추진과 국제제도의 활용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전후복구 체제	vs. 전후부흥 체제	경제발전	vs. 버블경제 체제	선진국 도약	vs. 잃어버린 10년 체제	창조적 성장	vs. 재후(災後)부흥 체제
한일 경제 구조	전후부흥	-전후 개혁과 경제 부흥 -전후 인플레이션	개발경제	-경제대국 -‘버블 경제’	-선진국 도약기	-거품경제의 붕괴 -‘잃어버린 10년’	금융위기 (1998) 이후 구조개혁기	-‘잃어버린 20년’의 연속vs. 탈피(산업공동화의 가속화)
한일 경제 정책의 변화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	-경제 ‘비군사화’ 및 ‘민주화’, 도지라인 -경제 자립으로 향하는 길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 전략적 무역정책	성장주의 정책	- 일본 디플레이션 가시화	규제완화 및 성장을 향상	-아베노믹스 제 3의 화살: 일본의 구조개혁 -TPP교섭참가. 협상 개시 (2013.7~) -디플레이션 탈출
한일 FTA 교섭 과정	민간 차원의 한일 FTA 공동 연구 개시(1998.12~2000. 4)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8차 회의(2002.7.~2003.10)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1~4차 실무협의 개최 (2008.06.25~2009.12.21) 한일 FTA 국장급협의 제1~2차 회의 개최(2010.9.16~2011.5.9)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제1~13차 회의 개최(1999.3.6~2015.1.8)							
한일간 대립과 협력	전후군수특수경제하 미 국주도의 대한국 협력 정책		한일협력 vs. 한미-미일마찰		다자주의 체제하의 한일 (양자간)협력 모색		기능적 다자간 협력 모색	

출처: 김영근(2015)

□ 제언

- 01 지금 유일하게 한일문제가 해소될 실마리는 ‘북일수교’ 교섭의 가교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평화 축전, 2020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다. 또한 이와 맞물린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국제협력 특히 한일간 외교공조이다. 양국의 대북정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지금 한일관계의 키워드는 ‘안전’이다
- 02 한일공조형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 "남북관계-북미관계 중요하지만 한일관계도 중요", 나아가 남북일 관계는 초석(새로운 모델)
- 03 새로운 협력 아젠다의 모색: “재난안전공동체를 시작하자”, “휴마트 공공외교에 힘쓰자”
- 04 “2020 한일국교안전화선언(가칭)”, “2019 한일공동가치포럼(가칭)” 선언 vs,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참고문헌: 김영근 외 저(2019) 『한일 관계의 긴장과 화해』 보고서